

## 涼膈散火湯의 基源, 變遷過程 및 構成原理

박병주\* · 이준희 · 이의주 · 고병희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상체질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 Abstract

#### The Origin, Changes and Compositive Principles of Yangkyuksanhwa-tang

Byung-Joo Park\*, Jun-Hee Lee, Eui-Ju Lee, Byung-Hee Koh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Medical Center Oriental Hospital

#### 1. Objectiv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rigin, the progressive changes and the constructive principles of Yangkyuksanhwa-tang (涼膈散火湯).

#### 2. Methods

Yangkyuksanhwa-tang and other related prescription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pathological indications,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including 『Donguisusebowon-Chobongwon (東醫壽世保元·草本卷)』, 『Donguisusebowon-Gabobon (東醫壽世保元·甲午本)』, 『Donguisusebowon-Sinchukbon (東醫壽世保元·辛丑本)』 and 『Dongmuyugo (東武遺稿)』.

#### 3. Results and Conclusion

- 1) The Yangkyuksanhwa-tang most likely originates from Sodokeum, Yangkyuksan, Baekho-tang and Indongdeung.
- 2) Sodoksanhwa-tang introduced in 『Donguisusebowon-Chobongwon (東醫壽世保元·草本卷)』 progressively transformed into Chungyangsanghwa-tang (『Donguisusebowon-Gabobon (東醫壽世保元·甲午本)』) and ultimately into Yangkyuksanhwa-tang (『Donguisusebowon-Sinchukbon (東醫壽世保元·辛丑本)』), a prescription appropriate for usage in the Sangso symptomatology (上消證).
- 3) Yangkyuksanhwa-tang is composed of 9 herbs. Of these, Schixonepetae herba(荊芥), Ledebouriellae Radix(防風), Forsythiae fructus(連翹), Menthae Herba(薄荷), Gardeniae fructus(梔子) scatter the Hwa-qi(火氣), and Rehmanniae Radix(生地黃), Gypsum fibrosum(石膏), Anemarrhenae(知母) put off the Stomach-heat(胃熱), whereas Loniceracaulis(忍冬藤) support the prevention of carbunculosis(癰疽).

Key Words: Yangkyuksanhwa-tang, variational prescriptions of Yangkyuksanhwa-tang, Sangso symptomatology

• 접수일 2011년 05월 09일; 심사일 2011년 05월 09일  
• 승인일 2011년 06월 08일  
• 교신저자 : 이의주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0 Fax : +82-2-958-9234  
E-mail : Sasangin@khmc.or.kr

## I. 緒 論

凉膈散火湯은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가운데 하나<sup>1)</sup> 少陽人의 裏病 중 上消에 쓰이는 대표적인 처방이다. 凉膈散火湯의 基源 및 變遷過程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옥<sup>1)</sup>의 사상 방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배<sup>2)</sup>의 少陽人 약방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sup>3)</sup>의 少陽人 약리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凉膈散火湯의 基源 및 變遷過程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凉膈散火湯과 관련하여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 제시되는 조문과 처방을 비교 연구하여 凉膈散火湯의 基源과 變遷, 그리고 構成 原理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작은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본 연구는 東武의 著作으로 알려진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은 『草本卷』으로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은 『甲午本』이라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은 『辛丑本』이라 약칭한다.

1. 기존 증치방을 바탕으로 하여 사상방이 출발한다는 개념 하에 凉膈散火湯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처방을 살펴본다. 특히 東武公의 증치방에 대한 시각이 담겨있는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과 「元明二代醫家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을 위주로 하여 기원 처방을 고찰해 본다.
2. 東武의 저술 순서(『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에 따라 각 저서별로 凉膈散火湯의 변천 과정에 해당하는 처방 및 병증을 살펴보고 凉膈散火湯의

構成 原理에 대해 고찰한다.

3. 동무 藥性歌와 『東武遺稿(海東)』의 本草에 관한 효능을 참고하였다.
4. 논문에 기재된 조문 및 조문 번호는 『사상체질과 임상편람』을 기준으로 한다.

## III. 本 論

### 1. 凉膈散火湯의 基源

처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凉膈散火湯은 淸熱과 散火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凉膈이라는 용어를 통해볼 때, 淸熱과 散火의 개념이 胸膈에 해당하는 胃熱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과 「元明二代醫家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에서 凉膈散火湯의 기원이 되는 처방을 살펴보면 『傷寒論』의 白虎湯과 『局方』의 凉膈散, 『龔信醫鑑』의 消毒飲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危亦林이 消渴에서 癰疽를 예방하기 위해 忍冬藤을 사용했다는 점을 취하여 凉膈散火湯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 처방의 약물 구성과 주소증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으며 기원이 되는 처방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凉膈散(『局方』)의 梔子, 薄荷, 連翹 등은 積熱 煩躁, 口舌生瘡, 目赤頭昏 등과 같은 上焦의 熱을 發散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의미가 上消, 纏喉風, 脣腫 등을 치료하는 凉膈散火湯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消毒飲(『龔信醫鑑』)의 荊芥穗, 防風, 牛蒡子, (生甘草) 등은 痘不快出과 같은 癰疽 증상과 胸前稠密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消毒飲의 이러한 의미는 凉膈散火湯 뿐만 아니라 陽毒白虎湯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辛丑本』에서 纏喉風, 脣腫과 같은 癰疽에 陽毒白虎湯과 凉膈散火湯을 사용한다고 한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만 凉膈散火湯의 경우 消毒飲의 구성 약물 중 牛蒡子が 빠지고 荊芥, 防風만 있는데, 이는 陽毒白虎湯보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凉膈散火湯

1) 『辛丑本』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凉膈散火湯 生地黃 忍冬藤 連翹 各二錢 山梔子 薄荷 知母 石膏 防風 荊芥 各一錢 右方 治上消者 宜用

Table 1. Compositions of Original and Changed Prescriptions and Indications of Yangkyuksanhwa-tang

文獻	傷寒論	危亦林	『局方』	『興信醫鑑』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			
處方名	白虎湯	忍冬藤	凉膈散	消毒飲	消毒散 火湯	(防風通 聖散)	(陽毒白 虎湯)	清涼散 火湯	(防風通 聖散)	(陽毒白 虎湯)	凉膈散 火湯	(陽毒白 虎湯)
					生地黃 2	生地黃 4	生地黃 1	生地黃 2	生地黃 4	生地黃 2	生地黃 2	生地黃 4
	石膏 5				石膏 1	石膏 4	石膏 1	石膏 1	石膏 4	石膏 1	石膏 1	石膏 5-10
	知母 2										知母 1	知母 2
		忍冬藤				忍冬藤 0.5	忍冬藤 4		忍冬藤 0.5		忍冬藤 2	
			連翹 2		連翹 1						連翹 2	
			梔子 0.5		山梔子 1	梔子 0.5	山梔子 0.5	山梔子 1	山梔子 0.5	山梔子 0.5	山梔子 1	
			薄荷 0.5		薄荷 0.5	薄荷 0.5	薄荷 1	薄荷 0.5	薄荷 0.5	薄荷 0.5	薄荷 1	
			荊芥穗 1		荊芥 1	荊芥 0.5	荊芥 1	荊芥 0.5	荊芥 0.5	荊芥 1	荊芥 1	荊芥 1
			防風 0.5		防風 1	防風 1		防風 1	防風 1		防風 1	防風 1
			牛蒡子 2		牛蒡子 1	牛蒡子 0.5	牛蒡子 1	牛蒡子 0.5	牛蒡子 0.5	牛蒡子 1		牛蒡子 1
					玄蔘 1		玄蔘 0.5			玄蔘 0.5		
構成					地骨皮 1							
						羌活 0.5	羌活 1		羌活 0.5	羌活 1		
						獨活 0.5	獨活 0.5		獨活 0.5	獨活 0.5		
							柴胡 0.5		柴胡 0.5	柴胡 0.5		
						前胡 0.5			前胡 0.5			
						滑石 2			滑石 2			
					黃連 1							
								苦蔘 2				
								覆盆子 1				
			芒硝 1									
	梗米 半合											
	甘草 0.7		(甘草 1)	(甘草0.5)								
			(大黃 1)									
			(黃芩 0.5)									
主治	消渴 須防 發癰疽 忍冬藤 不拘多少 根莖花葉 皆可服 (신10-19)	治積熱 煩躁 口舌生 瘡 目赤頭 昏	治痘不快 出及胸前 稠密 急用三四服 快透解毒神 效	治小兒痘 疹癰疹 本方加石 膏生地 黃清火 之力尤 大	治發熱陽 毒證						①上消 ②盜汗 ③纏喉風 脣腫의 輕 症	治陽毒發 斑便秘

의 荊芥 防風의 의미는 消毒飲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荊芥 防風의 의미를 모두 消毒飲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荊芥 防風의 大清胸膈散湯의 효능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白虎湯(『傷寒論』)의 石膏 知母는 주로 陽明氣分에 熱이 치성하여 壯熱, 煩渴引飲, 汗出, 脈洪大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의미는 清胃熱의 효능을 가진 凉膈散火湯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白虎湯에 쓰인 石膏와 知母의 용량이 대량인 것에 비해 凉膈散火湯에 쓰인 石膏와 知母의 용량이 1돈인 것을 고려하면 凉膈散火湯은 清胃熱에만 초점을 맞춘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忍冬藤은 新定方 처방 중에서 消渴에 사용되는 처방인 凉膈散火湯과 忍冬藤地骨皮湯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危亦林曰 消渴 須防發癰疽 忍冬藤 不拘多少 根莖花葉 皆可服'2)라고

한 危亦林의 醫論에서 그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즉, “論曰 癰疽眼病 皆是中消之變證也<sup>3)</sup>”라고 한 조문에서 보듯이 消渴로 인한 癰疽 증상에 대처하기 위해 忍冬藤이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涼膈散, 消毒飲, 白虎湯은 涼膈散火湯을 구성하는 기본 처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여기에 忍冬藤을 가하여 消渴에 대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2. 涼膈散火湯의 變遷

### 1)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消毒散火湯

처방명, 구성 약물을 바탕으로 『草本卷』에서 涼膈散火湯과 유사한 처방을 찾으면 消毒散火湯과 清腸散火湯을 들 수 있다. 消毒散火湯은 玄參, 地骨皮, 連翹, 黃連, 山梔子, 防風, 荊芥, 牛蒡子 각 1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涼膈散火湯과 비교하면 連翹, 梔子, 荊芥, 防風 4가지 약물이 일치한다. 여기에 消毒散火湯의 活套에 언급된 石膏, 生地黃을 가하면 6가지 약물이 일치한다.<sup>4)</sup> 清腸散火湯은 忍冬藤, 赤茯苓, 澤瀉, 山茱萸, 生地黃, 瓜蒌仁 각 2錢, 知母, 覆盆子, 車前子, 羌活, 獨活, 防風, 荊芥 각 1錢<sup>5)</s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涼膈散火湯과 비교하면 生地黃, 知母, 忍冬藤, 荊芥, 防風 5가지 약물이 용량까지 일치한다.

『草本卷』에서는 ‘水穀을 納하는 胃와 水穀을 出하는 大腸의 편차에 의해 少陽人은 熱氣가 잘 생긴다<sup>6)</sup>, ‘少陽人藥은 清腸한다.’<sup>7)</sup>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消毒散火湯과 清腸散火湯을 포함한 少陽人藥은 熱氣가 쉽게 생기는 少陽人에게 사용

하여 清腸 한다는 개념을 깔고 있다. 그런데 이 때 清腸의 개념은 단순히 清熱의 개념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草本卷』을 살펴보면 이미 少陽人의 기본 병증이 腎陰의 손상 혹은 火熱의 병증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清腸의 개념에는 清熱과 補腎(陰)의 개념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두 처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消毒散火湯은 처방명과 主治(治小兒痘疹 癰疹), 처방구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볼 때, 『龔信醫鑑』의 消毒飲(主治와 效能: 治痘不快出及 胸前稠密 急用三四服 快透 解毒神效, 처방 구성: 荊芥 防風 牛蒡子 甘草)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局方』의 涼膈散 개념(主治와 效能: 治積熱煩躁 口舌生瘡 目赤頭昏, 처방 구성: 連翹 梔子 薄荷 芒硝 甘草 大黃 黃芩)을 함함으로써 散火(連翹 梔子)의 효과를 더욱 배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만약 活套에 있는 대로 石膏와 生地黃을 가한다면 清熱의 효과가 더욱 강해지는 처방이다.

清腸散火湯은 主治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약물 구성을 통해 처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涼膈散火湯과 중복되는 약물들은(生地黃, 知母, 忍冬藤, 荊芥, 防風) 清熱(散火)의 효능을 가진 약물로 생각된다. 그런데 清腸散火湯에는 涼膈散火湯과 중복되는 약물 외에도 7개의 약물이 있다. 그 중 山茱萸 茯苓, 澤瀉는 六味地黃湯의 약제로서 이 약물들이 들어간 처방(六味地黃湯, 地骨皮地黃湯, 知柏地黃湯, 腰將軍湯, 蔞瓜湯, 瓜蒌仁地黃湯, 黃柏地黃湯, 七味苦蔞湯, 八味苦蔞湯, 水火既濟湯, 七味猪苓湯)들은 대부분 補腎(陰)의 개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山茱萸, 茯苓, 澤瀉는 기본적으로 補腎(陰)의 정신을 갖는다고 추정된다. 증치 의학에서 腎元을 보하는 약물로 분류되는 覆盆子, 車前子도 清腸散火湯에 쓰여 山茱萸, 茯苓, 澤瀉의 효능을 도와 補腎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消毒散火湯은 清熱(散火)에 초점을 맞춘 처방이고 清腸散火湯은 清熱 뿐만아니라 補腎(陰)까지 고려한 처방으로 보인다. 결국 涼膈散火湯이 清熱(散火)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처방이라는 점에서 볼 때, 清腸散火湯보다는 消毒散火湯이 涼

2) 『辛丑本』 10-19 危亦林曰 消渴 須防發癰疽 忍冬藤 不拘多少 根莖花葉 皆可服.  
 3) 『辛丑本』 10-22 論曰 癰疽眼病 皆是中消之變證也  
 4) 『草本卷』 12-3 消毒散火湯 治小兒痘疹 癰疹 本方 加石膏 生地黃 清火之力 尤大 治小兒異於大人 用藥不可太峻 服藥時 可以誘導 不可却抑 玄參 地骨皮 連翹 黃連 山梔子 防風 荊芥 牛蒡子 各一錢  
 5) 『草本卷』 13-4 清腸散火湯 忍冬藤 赤茯苓 澤瀉 山茱萸 生地黃 瓜蒌仁 各二錢 知母 覆盆子 車前子 羌活 獨活 防風 荊芥 各一錢  
 6) 『草本卷』 『病變之第五統』 少陽人受穀之胃潤而泄穀之大腸窄 譬如甕中酒釀宿釀密封則 熱氣易生也  
 7) 『草本卷』 『病變之第六統』 少陽之藥 宜清腸而不宜溫裏

膈散火湯의 처방 정진과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石膏, 生地黃을 가미한 消毒散火湯의 경우 처방구성이 凉膈散火湯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草本卷』에서의 凉膈散火湯 변천방으로는 消毒散火湯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2)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의 清凉散火湯

『甲午本』에서 凉膈散火湯의 변천 처방으로 생각되는 것은 清凉散火湯<sup>8)</sup>이다. 清凉散火湯은 忍冬藤 4錢 苦參 2錢 生地黃, 覆盆子, 薄荷, 山梔子, 防風, 石膏 1錢, 荊芥, 牛蒡子 5分으로 구성된다. 凉膈散火湯과 비교하였을 때 忍冬藤이 2돈 많고 凉膈散火湯에는 없는 苦參 2돈, 覆盆子 1돈, 牛蒡子 5푼이 있다. 또한 凉膈散火湯보다 荊芥가 5푼 적으며 凉膈散火湯에는 포함된 知母 1돈, 連翹 2돈이 빠져있다.

『甲午本』은 少陽人에 대한 東武의 병증약리가 어느 정도 확립된 시기로 병증을 크게 表裏病으로 대별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甲午本』의 篇名<sup>9)</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병의 근본은 각 체질의 취약 부위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여<sup>4)</sup> 偏小之臟과 保命之主를 증시한다. 따라서 少陽人 裏病의 경우 大腸의 陰氣(陰清之氣) 확보와 이를 펴박하는 裏熱의 제거가 관건이 된다.

『甲午本』에서는 少陽人의 裏病을 크게 少陽人 大腸病 胸膈熱證(傷寒讞語), 消渴, 陰虛午熱證의 범주로 나누게 된다. 이 중 消渴病은 '陰虛火動 胃熱肉爛之病'이라 하여 大腸의 陰氣(寒氣)가 상대적으로 虛한 상태에서 胃中の 熱氣가 盛하여 발생한 病證으로 설명하였다.<sup>5)</sup> 이는 少陽人에 있어 상대적으로 小한 大腸(陰之分局)의 陰氣(少陽人의 正氣)가 상대적으로 大한 胃中(陽之分局)의 熱氣(少陽人의 邪氣)를 제어하지 못하여 胃中에 熱氣가 병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아직 大腸(陰之分局, 裏局)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裡之表病'<sup>10)</sup>으로 분류되며, 병위는 胃中(陽之分局, 表局)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消渴을 설명하면서 中消를 主證, 上消를 中消의 初證, 下消를 中消의 末證, 面目口鼻咽喉牙齒之病을 中消의 變證, 癰疽強中之病을 中消의 危證<sup>11)</sup>이라고 하였고, 下消強中을 胃火肉爛之久病<sup>12)</sup>이라고 하여 下消와 癰疽強中之病을 消渴의 主證인 中消보다 위험한 병증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午本』에서는 아직 下消를 裡之表病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어 『辛丑本』의 시각과는 차이를 보인다.(『辛丑本』에서는 下消를 上消 中消와 구분하여 陰虛午熱과 같은 범주로 생각함)

이러한 병증 인식 하에 消渴에 제시하는 동무의 처방이 바로 清凉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sup>13)</sup>이다. 우선 消渴은 裡之表病으로 胃中에 熱氣가 항진된 것이 병의 원인이므로 위의 처방들은 胃中の 熱氣를 식히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清凉散火湯이 『甲午本』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消渴, 下消強中, 少陽人小兒 食多肌瘦 當門二齒肉爛或有微血<sup>14)</sup>으로 胃中の 熱氣가 치성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消渴의 범주에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水銀熏鼻方을 설명하면서 靈砂 소량을 清凉散火湯과 함께 복용하여 胸膈間痼積之熱을 공격하고 이 후 清凉散火湯만을 사용하여 완만하게 清熱의 효과를 얻는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sup>15)</sup> 清凉散火湯이 胃中の 熱氣를 蕩

10) 『甲午本』 11-2 王好古所論 上消中消下消證 卽少陽人裏之表病也

11) 『甲午本』 10-27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 陰虛火動 胃熱肉爛之病而 中消爲此病之主證 上消則 中消之初證也 下消則 中消之末證也. 面目口鼻咽喉牙齒之病則 中消之變證也. 癰疽強中之病則 中消之危證也.

12) 『甲午本』 10-32 論曰 下消強中 胃火肉爛之久病

13) 『甲午本』 10-27 (중략) 治法宜早 宜急於上消中消 不可差緩太晚於下消癰疽強中 宜用 清凉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 必戒哀怒斷酒色.

14) 『甲午本』 11-33 少陽人小兒 食多肌瘦 當門二齒肉爛或有微血 此胃熱也 當用 清凉散火湯 防風通聖散 日一貼 或二三四五十貼 以大滑便蕩胃熱爲度.

15) 『甲午本』 『元明二代醫家著述中少陽人病行用要藥九方水銀熏鼻方』 (중략) 水銀硫黃合煨者爲靈砂而 硫黃能制水銀毒故 靈砂最爲水銀藥中無毒之藥 清凉散火湯 調下一二分則 胸膈間痼積之熱 可以攻擊而 亦不可過四五服 四五服後則 單用清凉散火湯 緩平清熱

8) 『甲午本』 清凉散火湯: 忍冬藤 四錢 苦參 二錢 生地黃 覆盆子 薄荷 山梔子 防風 石膏 各一錢 荊芥 牛蒡子 各五分

9) 『甲午本』 『少陽人內軀大腸病論』

滌하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능을 얻기 위한 처방 구성은 『草本卷』의 消毒散火湯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消毒散火湯은 清熱(散火)의 기본 개념을 갖고 있으며 石膏, 生地黃을 가미한 경우 清火之力이 더욱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草本卷』 시기에는 아직까지 개별 병증에 대한 병리 및 치법이 확실하지는 않았던 상태였다. 따라서 소양인 병증의 치법으로 크게 清熱과 補腎(陰)의 원칙으로 접근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甲午本』 시기에는 消渴 같이 胃熱이 치성한 병증(陰虛火動胃熱肉爛之病)에는 清(胃)熱이 필요하다는 치법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消毒散火湯에 石膏, 生地黃을 기본으로 포함시킨 消毒散火湯 가미방을 기본으로 하여 清(胃)熱의 정신을 가진 清涼散火湯을 창방한 것으로 보인다. 清涼散火湯은 消毒散火湯에서 連翹, 玄蔘, 地骨皮, 黃連이 빠지고 대신 忍冬藤, 薄荷, 苦蔘, 覆盆子가 들어간 처방이다. 몇 가지 구성 약물에 차이가 있지만 清(胃)熱을 직접적으로 돕는 石膏, 生地黃과 散火를 통해 清(胃)熱을 이끌어 내는 梔子, 荊芥 防風, 牛蒡子 등의 구성 약물이 일치하는 것과 그 처방 정신이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清涼散火湯은 消毒散火湯에서 유래했다고 생각된다.

清腸散火湯의 처방 구성 중 한 가지 독특한 점을 꼽는다면 清熱(散火)하는 石膏, 生地黃, 忍冬藤, 梔子, 薄荷, 荊芥, 防風, 牛蒡子 외에 覆盆子和 苦蔘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覆盆子は 腎精이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약물로서<sup>16)</sup> 『甲午本』에서는 주로 生地黃, 山茱萸 등과 함께 여러 처방(千金導赤散, 柴胡芫荽湯, 錦上添花白虎湯, 渡海白虎湯, 七味猪苓湯, 七味苦蔘湯, 水火既濟湯)에 등장한다. 生地黃은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sup>17)</sup> 하고, 山茱萸는 性溫 澁精益髓 腎虛耳鳴 腰膝痛

可也.

16) 『東武遺稿』 覆盆子 甘 腎損精竭 黑髮明眸 補虛續絕  
17) 『東武遺稿』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

止 健腎直腎<sup>18)</sup> 하는 약물로 熟地黃이 거의 쓰이지 않던 『甲午本』에서는 生地黃과 山茱萸의 조합이 少陽人의 本에 해당하는 腎元 직접적으로 복돋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生地黃, 山茱萸와 주로 함께 쓰이던 覆盆子는 두 약물과 함께 腎元을 복돋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치의학에서도 覆盆子の 효능을 下焦, 腎元을 보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점<sup>19)</sup>도 覆盆子の 역할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苦蔘은 苦寒한 성미를 바탕으로 腸風 혹은 下血에 사용하는 약물이다.<sup>20)</sup> 증치 의학에서도 苦蔘의 효능을 清熱燥濕이라고 하여 濕熱痢疾, 便血, 赤白帶下 등을 치료한다고 보았다.<sup>21)</sup> 이를 바탕으로 볼 때 苦蔘은 苦寒한 성미를 바탕으로 주로 大腸의 熱氣와 濁氣를 제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覆盆子和 苦蔘은 腎元(大腸)에 작용하는 약물로 생각되는데, 腎元이 손상되지 않은 裏之表病(消渴)에 覆盆子和 苦蔘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清涼散火湯은 消渴에 두루 사용되는 처방으로 특히 下消強中에 마땅히 쓰여야할 처방으로 언급되어 있다.<sup>22)</sup> 따라서 清涼散火湯은 消渴의 기본 원인인 胃熱을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未證으로 진행할 경우 下消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혹은 이미 下消가 된 상황에서 大腸의 陰氣(寒氣)까지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다. 즉 清涼散火湯은 上中下消 중 어느 한 병증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消渴이라는 전체 병증을 아우르는 처방으로, 胃熱을 해결하기 위한 清熱(散火)의 정신에 消渴의 말증인 下消強中을 고려한 補腎元의 개념이 합해진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3)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涼膈散火湯

涼膈散火湯은 清涼散火湯에서 苦蔘, 覆盆子, 牛蒡子를 去하고, 忍冬藤을 2錢 減한 후 知母, 連

18) 『東武遺稿』 山茱 性溫 澁精益髓 腎虛耳鳴 腰膝痛止 山茱萸 健腎直腎  
19)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本草學. 서울:永林社. 2007:453p  
20) 『東武遺稿』 苦蔘 味苦 癰腫蒼疥 下血腸風 眉脫赤癩  
21)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本草學. 서울:永林社. 2007:211p  
22) 『甲午本』 10-32 論曰 (중략) 下消強中者 當用 清涼散火湯

翹를 加하고 生地黃1錢, 荊芥 5分을 增加시킨 처방이다. 이러한 변화는 『辛丑本』으로 오면서 東武의 병증약리관이 더욱 구체화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甲午本』에서는 消渴을 陰虛火動 胃熱肉爛之病 이라고 하여 大腸의 陰氣(寒氣)가 상대적으로 虛한 상태에서 胃中의 熱氣가 盛하여 발생한 病證<sup>23)</sup>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上消, 中消, 下消를 少陽人의 裏之表病이라고 하여 기본적인 병의 부위를 偏大之臟에 해당하는 胃中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辛丑本』과는 달리 上消, 中消, 下消에 대한 병리적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처방도 上消, 中消, 下消에 각각 특화된 처방 대신 清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을 함께 제시하게 된다. 이에 비해 『辛丑本』에서는 上消, 中消, 下消의 병리를 清陽 상승의 정도를 바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sup>24)</sup> 처방도 이러한 구분에 맞추어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sup>25)</sup> 上消의 경우 胃局의 清陽이 상승하여 頭面四肢에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胃熱이 매우 치성한 상태는 아니며, 병위도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방은 胃熱을 직접적으로 식혀주는 것 뿐 아니라 높은 부위에 있는 火氣를 가볍게 날려주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甲午本』 清涼散火湯의 清熱(散火)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上消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위해, 苦參, 覆盆子를 빼고 連翹 등을 가하여 散火의 개념을 더욱 강조한 凉膈散火湯이 만들어진다. 또한 『辛丑本』의 忍冬藤地骨皮湯 역시 中消에 더욱 적합하게 만들어진 처방으로 清涼散火湯을 기본방으로 하여 창방된 것으로 생각된다.<sup>26)</sup>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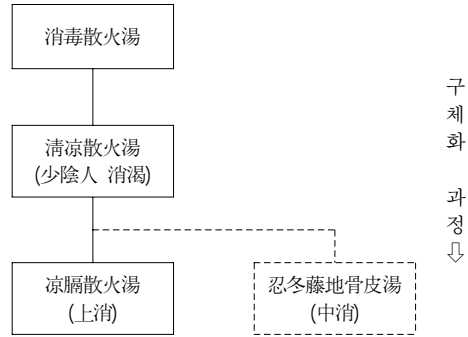


Figure 1. Change of Yangkyuksanhwa-tang and Indongdeungjilpolpi-tang

### 3. 凉膈散火湯의 構成 原理

凉膈散火湯은 生地黃, 忍冬藤, 連翹, 各2錢 山梔子, 薄荷, 知母, 石膏, 防風, 荊芥 各1錢<sup>27)</sup>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처방 정신이 清熱과 散火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구성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凉膈散火湯의 처방 구성 중 散火의 효능에 초점을 맞춘 약물로는 우선 荊芥와 防風을 들 수 있다. 荊芥 防風은 羌活 獨活과 함께 表病의 모든 처방(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導赤降氣湯, 荊防瀉白散, 猪苓車前子湯,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에 쓰이며 降表陰을 이끄는 주된 약물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역할에는 구분이 있어서, 荊芥 防風은 大清胸膈散風, 羌活 獨活은 大補膀胱眞陰 한다고 하였다. 凉膈散火湯에는 이 4가지 약물 중 荊芥 防風 두 가지만 사용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凉膈散火湯이 胃局 清陽의 상승을 방해하는 火氣를 흩어준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清陽의 상승을 막는 흉격의 火氣를 푸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大清胸膈散風하는 荊芥 防風은 필요하지만, 大補膀胱眞陰하는 羌活 獨活은 필요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上消의 처방인 凉膈散火湯에는 羌活 獨活은 빠지고 荊芥 防風만 사용되게 된다. 그리고 이는 清胃熱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少陽人 裏病 처방 대부분이(陽毒白虎湯, 凉膈散火湯, 忍

23)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55p

24) 『辛丑本』 10-17 胃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頭面四肢 則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胃局 則成中消病 上消 自爲重證 而中消 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險證 而下消 倍險於中消.

25) 『辛丑本』 10-17 上消 宜用凉膈散火湯 中消 宜用忍冬藤地骨皮湯 下消 宜用熟地黃苦參湯

26) 한경석, 박성식. 少陽人 약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3):46p

27) 『辛丑本』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凉膈散火湯 生地黃 忍冬藤 連翹 各二錢 山梔子 薄荷 知母 石膏 防風 荊芥 各一錢 右方 治上消者 宜用

冬藤地骨皮湯, 十二味地黃湯) 荊芥, 防風, 羌活, 獨活 중 胸膈熱을 흠어주는 荊芥, 防風만 취한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荊芥 防風과 더불어 連翹 梔子 薄荷는 胃局 清陽이 頭面四肢로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火氣를 흠어준다. 連翹는 『東武遺稿』에서 “苦寒하여 能消癰毒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으며<sup>28)</sup>, 증치의학에서도 “質이 輕清하여 上浮하므로, 上焦의 風熱을 散한다”<sup>6)</sup>고 하였다. 梔子は 『東武遺稿』에서 “性寒하여 解鬱除煩한다<sup>29)</sup>, 흉중의 火氣를 크게 식히는 작용을 한다.<sup>30)</sup>” 고 하였으며 증치의학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輕清上行하여 心胸의 煩熱을 풀고 瀉火除煩한다”고 하였다. 薄荷는 『東武遺稿』에서 “味辛하여 最清頭目 祛風化痰하는 효능이 있다.<sup>31)</sup> 頭面을 식히는 묘약이다.<sup>32)</sup>”라고 하였으며 증치의학에서는 “性이 涼하고 質이 輕하다. 涼은 清熱하고 輕은 散風하여 上焦의 風熱을 疏散시키는 효능이 있고 頭目을 淸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連翹, 梔子, 薄荷는 輕淸함을 바탕으로 胃熱을 식히고 散火하는 효능을 가진 약물로 涼膈散火湯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生地黃은 『東武遺稿』에서 淸胃而安腎<sup>33)</sup>한다고 하였으며,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이라고 하였다.<sup>34)</sup> 또한 少陽人의 淸熱藥 중의 하나로 生地黃을 꼽고 있기도 하다.<sup>35)</sup> 이를 종합해 볼 때 生地黃은 기본적으로 淸胃熱의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辛丑本』에서 生地黃의 쓰임을 살펴보면 表病 중 順證에 해당하는 少陽傷風證, 結胸證 처방(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導赤降氣湯, 荊防瀉白散)과, 裏病에서도 역시 順證에 해당하는 胸膈熱證, 上消, 中消의 처방(地黃白虎湯,

陽毒白虎湯, 涼膈散火湯, 忍冬藤地骨皮湯)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亡陰이나 陰虛午熱 같은 逆證은 偏小之臟이 손상된 상태로 직접적인 補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順證에 해당하는 병증들은 偏小之臟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고, 병인으로 中上焦의 熱이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生地黃이 逆證에는 쓰이지 않고(荊防瀉白散 제외) 順證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도 生地黃의 효능이 淸胃熱에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대표적인 少陽人 淸熱藥인 石膏와 쓰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生地黃의 淸胃熱은 石膏의 淸胃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존의학에서는 生地黃의 효능을 淸熱涼血 養陰生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生地黃의 효능이 단순한 淸胃熱의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生津液의 개념도 포함함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生地黃의 生津液 개념을 동무가 제시한 少陽人의 병리 안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石膏와 知母는 기본적으로 淸胃熱의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白虎湯과는 달리 涼膈散火湯에 쓰인 石膏와 知母의 용량이 1돈인 것을 고려하면 涼膈散火湯은 淸胃熱에만 초점을 맞춘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忍冬藤은 증치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淸熱解毒, 疏風通絡의 효능이 있어 溫病發熱, 癰腫瘡瘍 등의 증상에 사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涼膈散火湯의 忍冬藤은 기존 의학의 관점과 비슷한 맥락으로 淸熱과 疏風의 효능을 바탕으로 消渴에서 기인한 癰疽 증상에 대처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涼膈散火湯이 쓰이는 병증 및 처방 정신을 고려하여, 涼膈散火湯의 기원 처방과 구성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上消는 胃局의 淸陽이 상승하여 頭面四肢에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胃熱이 매우 치성한 상태는 아니며, 병위도 높지 않다. 따라서 上消의 처방은 胃熱을 직접적으로 식혀주는 것 뿐 아니라 높은 부위에 있는 火氣를 가볍게 날려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에 가장 적합한 처방은 처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淸胃熱과 散火의 효능을

28) 『東武遺稿』 連翹 苦寒 能消癰毒 氣聚血凝 濕熱壅逐  
 29) 『東武遺稿』 梔子 性寒 解鬱除煩 吐衄胃痛 火降小便  
 ○山梔子 醒腎之眞氣  
 30) 『東武遺稿』 黃連山梔子 大淸熱胸中之火  
 31) 『東武遺稿』 薄荷 味辛 最淸頭目 祛風化痰 骨蒸宜服  
 32) 『東武遺稿』 薄荷白芷蒼耳子 淸頭面之妙藥也  
 33) 『東武遺稿』 22-1 生地黃 淸胃而安腎  
 34) 『東武遺稿』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  
 35) 『東武遺稿』 少陽 淸熱 黃連梔子生地黃石膏知母黃栢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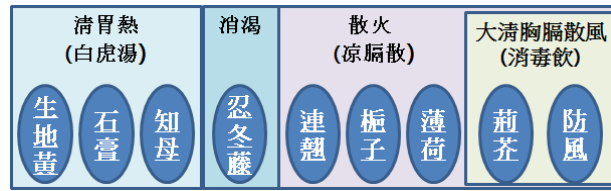


Figure 2. Compositive principle of Yanggyuksanhwa-tang

가진 凉膈散火湯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凉膈散火湯은 散火의 효능을 위해 『龔信醫鑑』의 消毒飲, 『局方』의 凉膈散의 정신을 취하고 있다. 이 때 消毒飲의 荊芥 防風은 大清胸膈散風의 효능을 통해 胸膈熱을 흘려자 한 것이며, 凉膈散의 薄荷, 梔子, 連翹 역시 胃局清陽이 頭面四肢로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火氣를 풀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凉膈散火湯은 清胃熱의 효능을 위해 『傷寒論』의 白虎湯 정신도 취하게 된다. 더불어 消渴에서 기인한 癰疽 증상에 대처하기 위해 忍冬藤을 가하여 凉膈散火湯이 완성되게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Figure 2와 같다.

#### IV. 結 論

凉膈散火湯의 基源과 變遷, 그리고 構成 原理을 알아보기 위하여 『東武遺稿』,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처방 및 병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凉膈散火湯의 기원 처방으로 『傷寒論』의 白虎湯과 『局方』의 凉膈散, 『龔信醫鑑』의 消毒飲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危亦林이 消渴에서 癰疽를 예방하기 위해 忍冬藤을 사용했다는 점을 취하여 凉膈散火湯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2. 『草本卷』에서 凉膈散火湯 변천방으로 생각되는 것은 消毒散火湯이다. 消毒散火湯은 清熱(散火)에 초점을 맞춘 처방으로서 그 처방 정신이 凉膈散火湯과 상통하며 石膏, 生地黃을 가미할 경우 처방구성도 凉膈散火湯과 매우 흡사해진다.

3. 『甲午本』에서 凉膈散火湯의 변천방으로 생각되는 것은 清凉散火湯이다. 『甲午本』에서는 上消, 中消, 下消를 모두 消渴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보고, 胃中의 熱氣가 盛하여 발생한 裡之表病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清胃熱(散火)를 기본으로 하되 消渴의 말증인 下消까지 고려하여 補腎元의 정신을 가미한 清凉散火湯을 창방하게 된다.
4. 『辛丑本』에서는 東武의 병증약리관이 더욱 구체화 되면서, 上消, 中消, 下消의 병리를 清陽 상승의 정도를 바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처방도 이러한 구분에 맞추어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上消에는 胃熱을 직접적으로 식혀주는 것 뿐 아니라 높은 부위에 있는 火氣를 가볍게 날려주는데 초점을 맞춘 凉膈散火湯을 사용하게 된다.

#### 參考文獻

1. Ok YY, Kim KY. Study on history of prescription through comparison Sasang -Yihak - Chobonguen with Dongyi - Soose - Bowon. J Sasang Constitut Med. 2000;12(2):43-55.(Korean)
2. Bae HS, Park SS.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yangin prescrip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3):33-51.(Korean)
3. Han KS, Park SS.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yangin Pharmacology-focused on 'Gabobon' and 'Sinchukbon'.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3): 38-48.(Korean)
4. Lim JN, Lee EJ, Koh BH, Song IB. Comparison with

- 'Gu-Bon' and 'In-Bon' on Symptom of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2):62-73.(Korean)
5. Lee JH, Lee SK, Koh BH, Song IB. A study 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of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2):49-61.(Korean)
  6.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本草學. 서울:永林社. 2007.(Korean)